

## 내안의 적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 라고 했던가.

억압과 수탈, 굴욕과 수치의 한국 근현대사는 술한 이들의 피자국으로 얼룩져있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수탈이 있는 곳에 반역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의 밑바탕에는 '위대한 독재자'가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서' 불가능으로 치부되던 바위의 균열을 꺾어온 이름 없는 민중들이 자리한다. 값없이 흘린 피란 없다. 나는 그로부터 역사를 신뢰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반민주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얼마간 '개량'된 사회 내부에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반민주성을 찾아 비판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인 듯 싶으면서도 짧은 글로 표현하기에 턱없이 벅겁다. 지극히 일반적인 접근으로 민주주의의 필수요건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가, '사회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의 민권 보장을 꼼꼼히 따지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모르고 있어서 일개 작가이자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한 내게 그 정체를 찾아내라고 하겠는가. 나는 그저 내가 현재 느끼는 '불편함' 밖에 쓸 수가 없다. 모자라거나 넘침은 내 부덕의 소산일 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002 월드컵 기간 동안, 나는 당시에 흔치 않은 여성 축구팬이라는 이유로 급조되어 만들어진 많은 지면에 글을 써서 발표했다. 그러는 사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한국팀의 놀라운 성적도 그랬고, '붉은 악마'로 통칭되는 전 국민의 서포터즈화도 그랬고, 그에 대한 지식인 사회의 반응도 그러했다. 그 중에 진보진영의 '파시즘' 지적도 있었고, 그에 대한 설왕설래도 있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아직도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와 애국적 민주주의의 갈림길에서 멈칫거리다. 나는 한국 대표팀을 응원한다. 하지만 한꺼번에 분출되는 '애국적 열정'은 두려워한다. 그렇다고 그것을 '파시즘'이라고 말하면 감정이 상한다.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다른 길을 간다.



이것은 단면에 지나지 않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소용돌이 안에서 나는 견지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다. '대~한민국'이라는 응원구호와 상관없이 '한국 대표팀'을 '우리나라 팀'이라든가 '대한민국 팀'이라고 쓰지 않는 다던가, '한국 선수들'을 '태극 전사'라고 부르지 않는 것, 그리고 '민족적 기개'이라든가 '한민족의 우수성' 따위의 표현을 철저히 자제하는 것. 나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월드컵의 이면에 숨은 3세계 아동들의 노동착취와 침탈당하는 민중생존권을 알고 있다. 그 때문에 축제를 멈출 수야 없지만, 적어도 지식인들만은 기억 한켠에 빨간 등을 켜 두어야 한다.

실로 작가를 '공인'이라고 한다면, 작가의 의식과 행동은 사회의 진보와 역사적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어찌면 현재와 같은 이완기의 글쓰기가 폭압기의 글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모두가 철저히 자기 검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진정한 진보이며 무엇이 억압의 잔재인가를 더욱 민감한 촉수를 곤두세워 재어보아야 한다. 때로 우리는(혹은 나는) 얼마간의 부정과 반성에도 불구하고 세뇌 받은 지배자의 논리를 고스란히 내부에 간직하거나 불쑥 드러내곤 한다. 실수이거나 부주의거나 무의식인 그것들은, 그러나 고스란히 또 다른 세계를 이룬다. 나는 그것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김별아(소설가)